

##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활자, 글씨’ 쓰임새 제안

이용제

계원디자인예술대학

### *A proposal about the use of 'letter, type, handwriting' in typography*

Lee, yong-je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 키워드

글자, 활자, 글씨, 한글, 타이포그래피

letter, type, handwriting, Hangul, typography

#### 1. — 문제제기

타이포그래피(typography)가 활자(type)와 다루는 기술(graphy)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볼 때, 활자에 관련된 ‘글자/ 글자꼴/ 글자체, 활자/ 활자꼴/ 활자체, 글씨/ 글씨꼴/ 글씨체, 문자, 서체, 글꼴’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중심이 되는 낱말이다. 그러나 『한글꼴용어사전』을 비롯한 한글로 된 많은 타이포그래피 논문과 책에서 이 말들은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거나 그 관계가 혼란스럽다. 특히 ‘type/ typeface/ type style, letter/ letter form/ letter style/ font’ 등 서양에서 들어온 말들과 겹치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 2. — 글의 목적

이 글은 타이포그래피라는 전문분야에서 쓰는 글자에 관련된 낱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다.<sup>9)</sup> 이 시도는 비전문가를 위한 정의가 아니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 3. — 선행된 논의

필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선행연구는 박병천, 김진평, 안상수, 한재준의 ‘통합체계로서의 한글 폰트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와 석금호의 ‘글자꼴 관련 용어 정리와 해설 -글꼴모임 마련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글꼴용어사전』이다. 이 세 가지 선행연구는 용어 정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우리말을 살려 쓰자, 둘째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말이 길어져서 경제성이 떨어져도 이해를 빠르게 한다면 순우리말을 쓴다. 셋째 외래어 중에 우리말로

읽기 어려운 것은 발음을 적는다. 필자는 여기에 논리적인 사고와 낱말의 핵심(본질) 찾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 4. — 글자, 활자, 글씨<sup>2)</sup>

글자: 말(음성)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인간이 사용하는 시각적 의사전달 체계로 한글, 로마자, 한자, 키릴, 아라비아 글자 등이 있다. 인쇄용일 때는 활자(type)라고 한다.

활자: 네모기둥 모양의 금속 윗면에 문자나 기호를 볼록 튀어나오게 새긴 것 또는 글자를 일정한 틀에 짜 맞추어 만든 것이다. 이는 활판으로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매개체로써 금속활자나 목활자 등 물성을 지닌 것과 사진식자 활자나 디지털 활자와 같이 물성을 지니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글씨: 쓴 글자의 모양. 글자를 쓴 것으로 손글씨라고도 한다. 예전에 글자는 붓을 사용하여 썼으나 현재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쓴다. 이를 정리하면, 글자는 언어를 시각화한 기호체계이고 활자는 글자를 반복해서 찍을 수 있게 만든 글자틀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매개체에 글자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글씨는 써진 글자로 이 세 낱말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

#### 5. — -체, -꼴<sup>3)</sup>

-체(體): 글, 글씨, 그림 따위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식이나 격식.

일정한 격식이나 모양새.

-꼴: 사물의 생김새나 됨됨이

'-체'는 한 대상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양식(스타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꼴'은 그 대상의 개별적인 생김새 외에 다른 뜻이 없다. 이는 똑같이 모양새에 관한 낱말이지만 '-체'는 여러 대상에서 일정한 모양새가 나타남을 전제로 하며, '-꼴'은 다른 대상과 유기적인 관계없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모양새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6. — 『한글꼴용어사전』 풀이

글자꼴(letter form): 글꼴과 비슷한 말. 자형(字形), 자체(字體), 문자형태(文字形態), 서체(書體)와 같은 말.

글꼴: 글자가 이루어진 모양. 혹은 공통적 성격의 글자 양식. 글자의 모든 형태를 아울러서 말하며, 활자꼴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진다. 글자꼴, 자형(字形), 자체(字體), 문자형태(文字形態), 서체(書體)와 같은 말.

글자체(letter style): 공통적으로 성격을 갖춘 글자의 양식, 체제, 서풍. 글자의 여러 가지 쓰는 방법. 한자의 육체, 한글의 궁체, 영어의 인쇄체, 필기체 등. 서체(書體)와 같은 뜻이며 글씨체와 글꼴을 참고하라고 함.

활자꼴(typeface): 기록, 표시, 인쇄 등의 글자 조립에 사용하기 위해, 동일적 개념에 따라 제작된 구조의 글자 또는 기호의 모양.

활자체: 활자꼴과 설명이 같음. 활자면에 있는 것 또는 활자로 찍혀진 특정한 한 벌의

글자성격을 말한다. 활자 서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정보전달을 위한 가독성을 강조한 본문이나, 개성있는 표현과 돋보임을 강조한 제목 글자체 등이 있다. 타입페이스(typeface)와 같은 말.

글씨꼴: (풀이 없음)

글씨체: 손 글씨의 표정 또는 그 글씨가 지닌 일정한 느낌. 글자체와 비슷한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글자를 써 놓은 체.

서체(書體, typeface): 글자의 체제. 글씨체를 참고하라고 한다.

『한글꼴용어사전』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글자꼴과 글자체는 서체와 같은 뜻이고, 서체는 글씨체와 비슷한 뜻이다. 서체와 활자꼴과 활자체는 ‘typeface’로 번역하고 있음으로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곧 이 모든 말이 같거나 비슷해진다. 또한 일상에서 글꼴이나 서체가 폰트(font)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서 글자, 활자, 글씨에서 파생된 말들이 모두 같은 뜻으로 인식되고 있다.

**활자꼴(typeface)**

||

**활자체(type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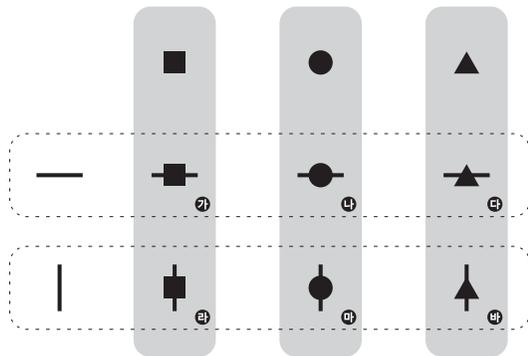
||

**글자꼴(letter form) = 글꼴 = 글자체(letter style) = 서체(typeface) ≙ 글씨체**

낱말들의 관계. 모든 낱말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풀이 되어 있다.

### 7. — 뜻 구분 제안

뜻이 서로 다른 ‘글자, 활자, 글씨’에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체, -꼴’을 더하여 만든 낱말은 그 의미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간단한 도형으로 논리 구조를 만들었다. 가, 나, 다, 라, 마, 바는 모두 다르다.

**글자:** 말(음성)을 적는 일정한 시각기호 체계.

**글자꼴:** 글자의 생김새. 글자 모양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글꼴은 글자꼴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글꼴이 글의 꼴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현재 일상에서 ‘font’의 우리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타이포그래피의 전문용어로 쓰기 보다 일반용어로 쓰는 것이 좋겠다.

**글자체:** 글자꼴의 양식(스타일). 글자 한 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양의 양식(스타일)을 말하기 때문에, 한 글자를 놓고 이야기해도 그 외의 같은 양식으로 된 글자가 더 있음을 전제한다.

**활자:** 인쇄하기 위해 만든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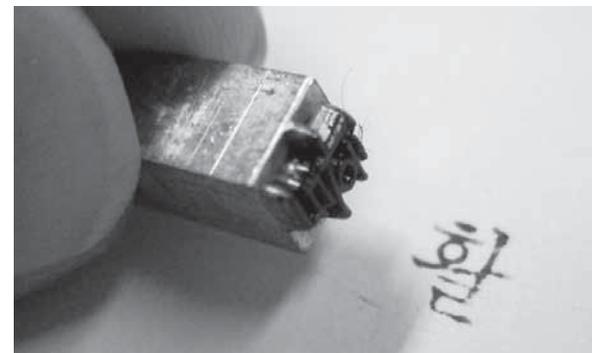
**활자꼴:** 활자의 생김새. 인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의 모양.

**활자체:** 활자꼴의 양식(스타일). 활자 한 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양의 양식(스타일)을 말하기 때문에, 활자 한 자를 가리켜도 그 활자와 같은 양식으로 된 활자가 더 있음을 전제한다.

**글씨:** 사람이 쓴 글자.

**글씨꼴:** 사람이 쓴 글자의 생김새.

**글씨체:** 글씨꼴의 양식(스타일). 쓴 글자 한 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양의 양식(스타일)을 말하기 때문에, 글씨 한 자를 놓고 이야기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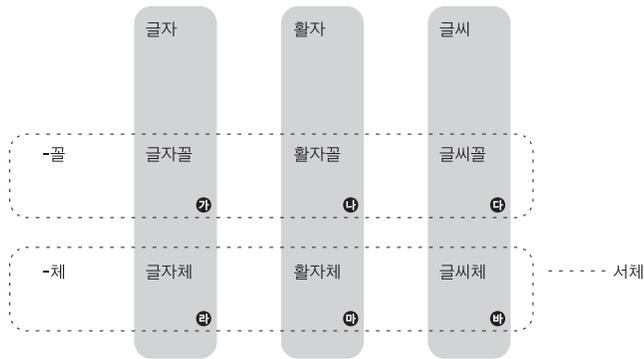


글자와 활자의 관계

그 외의 같은 양식으로 쓴 글자가 더 있음을 전제한다.

서체(書體): 글자체, 활자체, 글씨체 등과 같은 말로 쓸 수 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글씨체와 비슷한 말이고, 다양한 쓰임새로 본다면 포괄적인 의미인 글자체로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서(書)'는 글과 글자를 아우르는 말로서 의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라의 전문용어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도형으로 만들었던 논리구조에 각각의 낱말을 넣었다.  
여기에서도 가, 나, 다, 라, 마, 바의 낱말 뜻은 달라야 한다.

## 8. — 번역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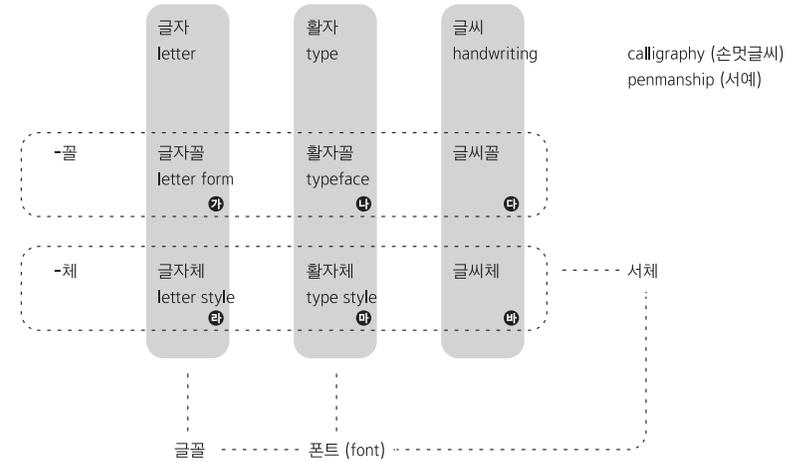
**폰트(font):** 글자생활에 필요한 한 벌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체.

폰트는 현재 우리말에 바꿨을 때 적합한 낱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이 우리말로 만들지 않는다면 한글로 '폰트'라고 쓰는 것을 제안 한다.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말 'calligraphy'는 '손멋글씨' 또는 '손글씨'라고 번역하거나 '서예'를 'calligraphy'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손글씨', '손멋글씨', '서예' 등이 다 같은 말처럼 되었다. 글자를

쓴다는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손글씨', '손멋글씨', '서예'의 풀이에 작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글씨'는 'handwriting'으로 번역하고, 글을 쓰는 것으로 가장 포괄적인 낱말로 필기에 의한 글씨, '손멋글씨'는 'calligraphy'로 번역하고, 글자에 멋(아름다움, 장식)을 의도적으로 더한 글씨, '서예'는 'penmanship'으로 번역하고, 글자를 쓰는데 법칙이나 예를 중요시 한 글씨로 구분하여 쓸 수 있다.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 제안

## 9. — 쓰임새 예시와 설명

다음 문장은 필자가『한글+한글디자인+디자이너』에서 쓴 문장 중 일부이며, 밑줄 친 낱말의 의미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 ① 좋은 글자는 회색도가 고르다.  
‘글자’라고 표현 한 것은 잘 못된 표현이고 ‘글자체’가 적합하다. 또는 좋은 ‘활자체’로 인쇄하면 회색도가 좋다.
- ② 한글디자인은 한글을 베낄 것인지 아니면 글자꼴을 베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글자꼴’이라고 한 것은 글자의 모양 부분 부분을 강조하여 말한 것이다.
- ③ TV 화면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조체를 사용한다면 글자가 뭉쳐 보이거나 글자 줄기가 가늘어서 사라질 것이다.  
‘활자’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 매체에 표현된 상태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글자’라고 했다. ‘글자꼴’이나 ‘글자체’를 사용한다면, ‘-글자꼴(체)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고쳐야 할 것이다.
- ④ 나는 지금 명조체와 비슷한 글자체를 최정호체로 부르고 있다.  
‘-체’를 붙여서 서체이름을 말했다면 같은 문장에서 ‘글자꼴’보다 ‘글자체’로 받아주는 것이 좋다.
- ⑤ 애플 컴퓨터사가 아도비의 포스트스크립트 글꼴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폰트 포맷이다.  
필자의 글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글꼴’이라 말을 썼다. ‘글꼴’을 쓴 것은 습관에 의한 사용이었다. 이 글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정확한 말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타입(type)’이 맞다.
- ⑥ 탈네모꼴에 대해서도 명조체와 고딕체 등 몇 안 되는 활자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겼을 뿐 탈네모꼴이 한글 글자꼴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활자꼴’보다 ‘활자체’로 썼어야 했다. 그리고 ‘글자꼴’ 역시 ‘활자체’로 썼다면 내용이 낱말에 남용에 따른 혼란이 적었을 것이다.
- ⑦ 이 그림만 봐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원익 타자기의 활자체는 여섯 벌 이상이거나,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벌수를 계산했을 수 있다.  
타자기를 이야기했기에 ‘활자’라고도 할 수 있으나 ‘활자체’라고 글자(활자)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활자꼴’보다 ‘활자체’가 적합하다.
- ⑧ 판독성은 어떤 글자가 그 글자 고유의 모습으로 정확히 보이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도 그 글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판독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글씨’와 ‘글자’ 모두 맞다. 그런데 그 글자가 인쇄된 것이면 ‘글자’가 적합하고 손으로 쓴 것이면 ‘글씨’가 적합하다. ‘활자’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 ⑨ 명조체의 경우 중국 명나라 때 유행했던 글씨체를 말다.  
‘글씨체’ 또는 ‘글자체’라고 할 수 있으나, 문맥에서 ‘명나라 때 유행했던’이라고 해서 ‘글씨체’로 썼다.
- ⑩ 폰트제작회사들은 기업 전용서체 일을 서로 맡으려고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어서 전용서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용서체’라는 말이 이미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썼다.  
‘전용서체’라는 말 대신 ‘전용폰트’라고도 한다.
- ⑪ 한글 서체와 관련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그다지 변한 것이 없기에 예전에 조사되었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체’는 이미 일반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전문가 대상의 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 전문적인 글이라면, ‘활자’ 또는 ‘활자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⑫ 디자이너는 자신이 디자인할 매체의 특성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보느냐 등 여러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좋은 폰트는 늘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폰트’는 ‘활자’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다. 따라서 ‘폰트’ 대신 ‘활자체’를 쓴다면 좋은 폰트의 논의는 범위가 좁아진다.
- ⑬ 최근 폰트 제작회사들은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배포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다.  
폰트제작회사가 불법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글자꼴’이 아닌 ‘폰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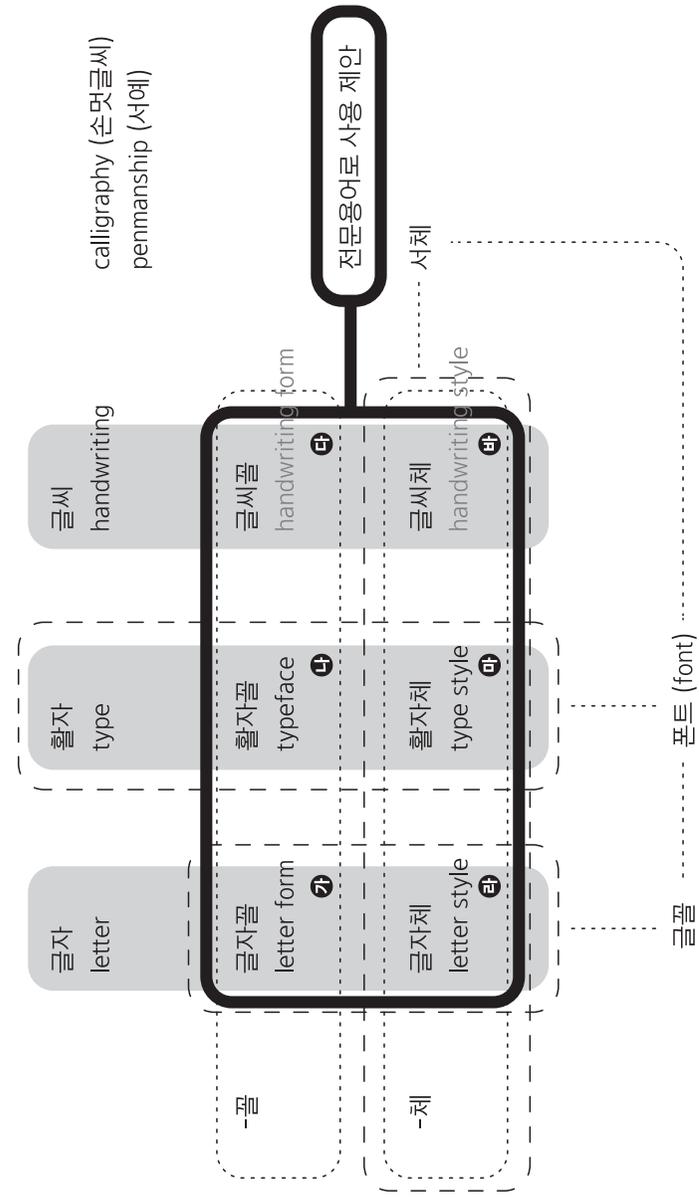
필자가 예전에 쓴 글을 보면서 ‘-체’와 ‘-꼴’에 따른 의미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 앞으로 ‘의미를 세밀하게 구분’한 글쓰기 시도가 필요하다.

10. — 낱말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것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낱말을 정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말과 한자말, 그리고 최근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말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또한 낱말을 정의를 하는  
 사람들 개인의 낱말과의 친밀도가 낱말 정의 기준에 반영되어서, 낱말의  
 선택과 정의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낱말의 친밀도는  
 배제해야 한다.

11. — 낱말 정의 방법 제안

필자가 앞에서 제안한 ‘글자, 활자, 글씨’에 관련된 낱말의 정의는  
 선생님과 선배님들이 세운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어 정의 방향인 우리말  
 살려 쓰기, 경제성 살리기, 외래어 중에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것은  
 발음을 적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필자는 그 방향성을 지키며 각 낱말의  
 뜻이 중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한 논리 구조를 이용하는 것과  
 낱말의 뜻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정의 대상의 본질을 논의해야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의 예로 ‘활자’를 설명하면, ‘인쇄/ 글자/ 나무/  
 금속/ 복제/ 사진/ 금속 기둥’ 등의 관련 낱말이 나온다. 이 말들을  
 가지고 ‘활자’를 정의해야 하는데, ‘활자’에서 ‘인쇄’와 ‘글자’는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의미고 나무와 금속 등은 기술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부분이다. 곧 ‘인쇄’와 ‘글자’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의미를 중심으로  
 낱말을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낱말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결국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낱말 구분과 정의 그리고 영문 번역을 함께 표현해 보았다.

## 12. — 끝맺음

이 글은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쓰는 낱말 중에서 비슷하게 쓰고 있는 말들을 구분하여 정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써야 한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 글에서 제안한 ‘글자, 활자, 글씨’에 관련된 낱말 외에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혼란스럽게 쓰는 낱말들이 많다는 것이다. 타이포그래피 전공자가 현재 쓰고 있는 낱말들의 뜻을 세밀하게 가르고 나누어서 그 낱말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주

- 01— 필자는 2005년 2월 월간 『디자인네트』에 썼던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이너 어디에 있는가’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용어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었고, 같은 글을 2009년 3월 출판한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이너』에서 ‘쓰는 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여 다듬었다. 그리고 2010년 4월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에서 타이포그래피사전 발간 작업 중에 이 분야의 교수님들과 논의하면서 느낀 점을 더해 새로 고치고 정리했다.
- 02— 『표준국어대사전』, 『브리태니커』, 『랜덤하우스』, 『한글꼴용어사전』의 풀이를 토대로 정했다.
- 03—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토대로 정했다.

## 참고문헌

### — 관련연구

- 박병천, 김진평, 안상수, 한재준. 『통합체계로서의 한글 폰트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1997
- 석금호. “글자꼴 관련 용어 정리와 해설-글꼴모임 마련안을 중심으로-”.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출판연구총서 7』. 한국출판연구소. 1990

### — 사전

- 박병천, 박종국, 안상수, 유명식, 임순범, 한재준. 『한글꼴용어사전』 한국글꼴개발원. 2000
- 브리태니커. <http://www.britannica.co.kr/>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랜덤하우스, 시사영어사. 『랜덤하우스』. 시사영어사. 2001

### — 단행본

- 이용제.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이너』. 세미콜론. 2009

## 초록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을 위해서 타이포그래피 용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한 축이 되는 낱말 '글자(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시각기호), 활자(인쇄하기 위해 만든 글자들), 글씨(사람이 쓴 글자)'에 '-체'와 '-꼴'을 붙여서 '글자/글자꼴/글자체, 활자/활자꼴/활자체 등'을 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나누는 시도이다.

## ABSTRACT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typography, it is inevitable to set agreed rules to typographic terminolog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mpound '-style', '-face' to letter(visual signs as a writing system), type(printed characters), and gulssi(hand-written characters) in order to theoretically classify letter/ letter form/ letter style, type/ typeface/ type style etc.